

‘랜덤채팅’ 범죄 기승... ‘카톡 오픈채팅’ 무법지대

5년 만에 방심위 제재 건수 9배 이상 증가

청소년유해매체...카톡 오픈채팅 無규제

작년부터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이나,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2020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그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하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해 채팅방에 접속도 가능하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랜덤채팅 앱의 경우, 앱 자체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 및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 가입 차단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톡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톡 측은 “파로 통계화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고받은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소규모 공사 현장 골든타임 외면해” 건설 노동자 위험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 직후 골든타임을 소홀히 하는 관리 감독 부실이 사망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형 사업장보다는 50억원 미만 소형 사업장일수록 사망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는 총 1만606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87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초 사고발생 2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건설사고가 92%(9758건), 사고조사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고도 13.2%(140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는 건설사고 발생시 최초 사고 신고를 2시간 이내에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해야하고 24시간 이내 사고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10건 중 9건 꼴로 건설 안전사고 골든타임을 지켜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전체 건설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토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의 65%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또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5%에서 2020년 44%, 21년 6월 기준 51%로 상승했다.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의 사망자 비중이 2019년 75%, 2020년 77%, 올해 6월까지 77%를 나타내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오섭 의원은 “일부 건설사들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광주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소홀 교사들 경고 처분 등 징계요구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10명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 광주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교직원 7명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 학교법인 측에 소속 교사 1명을 중징계, 2명을 경징계, 4명을 경고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특정감사는 이 학교 학교폭력 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 결과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절한 점이 발견돼 이들에 대한 징계나 경고처분을 요구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지난 8월 경찰은 장난을 가장해 동급생을 기절시키고 때린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 등)로 구속된 A(17)군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이들과 함께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나머지 8명의 학생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 ‘연향뜰 공청회’ 토지소유자, 허유인 순천시의회장에 비난 높아

동료의원 “현안 사업 의장 혼자 독단적 일처리하고 있어”

“연향뜰 개발 막는 허유인은 물러나라”, “투표할 때 두고보자. 확실하게 아웃이다” 순천시 주관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컨퍼런스홀에서 지난 1일 오후 3시 열린 ‘연향뜰 도시개발 공청회’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 50여명이 허유인 순천시의회장을 상대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시가 추진중인 연향뜰 개발에 대해 지나친 발목잡기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땅 소유자들은 “허 의장이 순천시의회 의견청취안을 10개월 동안 안전장정 조차 않은 채 연향뜰은 개발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명백한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순천시 발전 가로 막는 허 의장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나”고 성토했다.

순천시가 연향뜰, 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해 개발에 청신호를 켜졌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순천시의회 의견청취’ 안이 의회 안전장정 조차 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허 의장이 지난해 11월 순천시가 제출한 관리 계획 변경안을 받

았음에도 아직껏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 김병권·서정진 전 의장 등 동료 의원들이 허 의장에게 안전을 상정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허 의장은 지난 2016년 연향뜰에 순천만랜드(유원지)가 들어서는 일과 관련 적극 반대를 했으면서 이번에는 테마파크(놀이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수익성을 우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일부 건립하는 방향으로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향뜰을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는 가짜뉴스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날 연향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공청회에서도 허 의장은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는 혼자서 40분 동안이나 개발 반대 입장을 밝히다 주민들과 사회자의 만류에 이들을 상대로 다그치듯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 본인 얘기만 한 후 나가려다 2차례나 주민들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어 오후 4시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 상황 설명

등을 한마디도 듣지도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허 의장이 줄곧 “순천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순천시 백년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면서 본인 얘기만 하고 사라진 모습에 과연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시 드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순천시 의장을 역임한 임종기 전남도 의원은 “연향뜰 개발처럼 중요한 사업일수록 의장은 안전을 상정해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의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동료 의원을 인



순천만국가정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연향뜰 도시개발 공청회’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연향뜰 개발에 대해 지나친 발목잡기를 한다며 허유인 순천시의회장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의 공청회 모습. 허유인 시의장은 폐널들의 토론과 방청객들의 의견 수렴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 빈축을 샀다.

정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